

학술논저도 글쓰기의 혁신 필요하다

이치의 근본에 관한 창조적 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조동일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학자는 학술논저를 쓰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다. 대학에 입학하면 논문작법부터 배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논문을 쓰고,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석사논문을, 박사과정까지 이수하고는 박사논문을 내서 심사를 받고, 학위를 밀천으로 학자가 되고 교수로 나선다. 그래서 평생토록 학술논문에 매달리고, 저서도 내놓는다. 학술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저서는 출판물의 가장 값진 부분을 이룬다. 그 질과 보급 정도로 한 나라의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

학술논저는 창의적인 사고의 논리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나, 인용을 하고, 주를 달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격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체나 서술 방식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 힘들더라도 그런 요건을 배우고 익혀야 학술논저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런데 형식이 지나치게 존중되어 내용을 해치게 되었다. 형식만 번듯하게 갖추면 학술적인 업적을 이룩한 듯한 착각을 빚어내기에 이르렀다. 학술논저란 남들이 하는 말을 잔뜩 모아 주를 많이 달아서 쓴, 읽기 힘들고, 읽어도 별단 소득이 없는 글이며,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취직하고 승진하는 데나 소용되는 필요악인 듯이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학술논저를 아예 불신하고 가벼운 읽을거리나 만들어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해도 출판을 통해 대중화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이기를 기권했다고 극언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문은 버리고 인기 상품이나 내놓으려 하는 연구자들의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학술 연구의 핵심인 창의적인 사고를 되살려야 한다. 학술논저를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널리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자료 고증이나 기존 연구 검토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전개하는 방식은 논문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관습이다. 그런 내용의 저서를 내놓는다면 연구업적으로서 온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변물로나 취급한다. 대학이라는 기관이 생기고, 거기 봉직하는

교수는 연구업적을 내야 한다는 제도가 마련되어, 연구업적을 내용이 아닌 형식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편법이 유행해 그렇게 되었다.

그런 관습이 생긴 것은 서양 학문을 잘못 받아들인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제도나 학문하는 방식, 심지어는 논문작법까지 수입했으면서 학문의 핵심은 놓치고 외형만 이식해서,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역량을 훼손시켰다. 그릇된 모방과 추종이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서양 학문의 업적을 보자.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라고 하는 칸트(Kant)의 저서는 현재 우리에게 통용되는 기준으로 판별하면, 연구논저라고 하기 어렵다. 칸트는 교수 노릇을 하면서 그런 책이나 썼으니, 외도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책은 어떤 사실에 관한 고증으로 내용을 삼을 수는 없으나, 순수이성이라는 것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데 힘쓰거나 했으면 학술연구로서 필요한

학술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저서는 출판물의 가장 값진 부분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의 학술논저는 지나치게 형식만 존중되고 창의적 사고가 없다. 우리 선인들이 학문하는 방식은 결코 왜소하지 않았다. 사상과 표현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순수이성」이라는 말을 자기가 지어내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데 그쳤으며, 인용도 주도 거의 없다. 마치 소설가가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말을 했을 따름이다. 객관적인 논리를 갖추어 문학 작품 창작과는 다르고, 글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써서 수필은 아님을 분명하게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장이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철학의 길을 연 업적으로 인정되고,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칸트를 연구하고 그 책을 논하는 사람들은 원전 인용을 많이 하고, 선행 연구를 풍부하게 거론해서 학술논문의 요건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만약 칸트 자신이 업적 경쟁을 한다면, 후대의 칸트 연구가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철학계는 칸트처럼 저술하는 풍조는 단연코 배격하고 칸트 연구가들을 본받으면서, 허황되지 않고 착실한 학풍을 정착시켰다. 그래서 「순수이성비판」 같은 성격의 책을 스스로 쓰겠다고 나서면 철학과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학문의 세계에서 추방된다. 칸트가 싫으면 다른 교수를 섬기면 그만인데, 스스로 깨달아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분에 넘치는 것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교수라는 직업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선인들이 학문을 하는 방식은 그렇게 왜소하지 않았다. 元曉의 「金剛三昧經論」, 知訥의 「修心訣」, 鄭道傳의 「佛氏雜辨」, 任聖周의 「鹿廬雜識」, 崔漢綺의 「推測錄」을 들어 연구하고 글 쓰는 방식을 살펴보자. 그런 저술은 모두 이치의 근본에 대한 논자의 주장을 조리를 갖추어 전개했으며, 이미 있는 견해를 정리해서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述而不作的 가르침을 여기면서, 인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 말로 글을 이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발상의 가치가 거듭 재평가된다.

「금강삼매경론」은 경전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쓴 글이다. 경전을 풀이하는 것은 중세적인 글쓰기의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고, 불교의 교종에서 그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 그런데 원효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金剛三昧經」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주목되며, 그 경전을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풀이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경전을 풀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기 주장을 전개해 설득력을 높혔다고 하겠으며, 서두에서 전개한 총론에서 “一心之源 三空之海”라고 한 모든 것의 이치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자기 말로 전개했다. 전후 시기 국내의 불교저술 가운데 그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것처럼 철저한 논리로 다른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수심결」은 불교의 선종에서 마음을 닦는 방식을 일러준 책이라, 경전을 풀이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비근한 비유를 들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런 체험과 각성을 받아들여, 그 후계자인 慧謙에서 沖止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의 선승들이 문학 표현을 혁신하고, 민중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까지 이른 것도 특기할 일이다.

「불씨잡변」은 불교를 배격하고 유학을 옹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을 두고 쓴 글이다. 그런데 불교가 왜 부당하고 유학이 어째서 정당한가 하는 것을 사회적인 책임 문제로 시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과 심성의 관계에 관한 근본문제를 철저하게 따졌다. 불교를 배격하고 신유학을 새로운 이념으로 삼는 전환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이루어졌지만, 그 이유를 정도전이 가장 극명하게 밝혔다.

「녹려잡지」는 제목을 보면 산만하게 쓴 수상록처럼 보이고, 각기 독립된 斷想을 모아 놓았다.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理氣心性”이라는 부제에 합당한 논의를 철저하게 전개해서 기존의 이기이원론과는 다른 기일원론을 이룩했다. 「추측록」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각기 독립된 제목을 가진 작은 항목이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논리 전개에 필요한 구실을 단계적으로 감당하게 했다. 중요한 발언을 먼저 쓰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풀이라는 말을 보태 본말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어느 글이든지 그것대로 쓴 계기, 당면한 목표가 있고, 감당해야 할 여건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이 되는 이치를 그것대로 따지는 작업만 일관되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과 같은, 또는 데카르트(Descartes)의 「방법서설」(Discours de la méthode), 헤겔(Hegel)의 「정신현상학」(Phänomenologie des Geistes) 같은 성격의 이치 일반론을 거듭 전개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문화의 전통이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이 같지 않아 생긴 차이점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하겠으나, 이치의 근본을 스스로 따지는 글을 쓰는 전통이 서양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서양학문을 받아들이며서 이치 일반론을 스스로 전개하는 전통을 상실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양학문을 배우고 따르느라고,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던 능력을 잃었다. 서양학문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생긴 상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소생시켜야 하는 과업을 오늘날의 학문에서 감당해야 한다. 우리 학문을 다시 시작하는 마땅한 길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치를 따지는 학술논저 글쓰기 방식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치 일반론 글쓰기 방식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언제나 새롭게 모색해야만 했다. 특히 사상 혁신을 큰 폭으로 이루어, 기존 사상의 억압은 줄이면서 혁신의 성과를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18세기에 氣一元論을 이룩한 임성주·洪大容·朴趾源이 그 점에서 남다른 고민을 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경과를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이라는 저서에서 이미 자세하게 고찰했으므로, 그 요점만 간추려 옮기기로 한다.

임성주는 경전을 풀이하는 經義, 書論이라고 하는 편지 형식의 논쟁문, 스스로 묻고 답을 하는 방식의 問答, 도형을 그려놓고 설명을 붙이는 圖說 등의 방식을 두루 사용하고, 시를 지어 사상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엄밀한 책임이 따르는 않는 글을 자유롭게 쓰겠다고 표방하는 雜識를 통해서 가장 긴요한 논의를 성과 있게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홍대용과 박지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斷想을 열거하고, 기발하게 반문하며 비유하는 더욱 자유로운 側功이나 逆功의 방법을 개척했다. 홍대용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두 인물이 문답을 전개하는 「醫山問答」에서 그런 방식을 흥미롭게 구체화했는데, 박지원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虎叱」을 지어 세상을 우롱했다.

그런데 최한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에서 승부를 나누는 논쟁을 택했다. 기존

사상의 억압이 약화되어 자기 주장을 바로 드러내도 위협하지 않게 되었으며, 주장하는 바가 더욱 진전되고 체계화된 논리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을 풀이하고 述而不作해야 하는 중세적인 관습을 청산하고 근대학문의 글쓰기 방식을 번듯하게 내놓았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들을 잘못 따라가다가 오늘날 우리 학문이 멩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학술논저 글쓰기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착상을 생동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치의 근본을 창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학문의 근본 과업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근본을 살리는 외형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다채롭게 개발해야 한다. 편지글도 쓸 수 있고, 문답도 택할 수 있고, 圖說을 재현할 수도 있고, 「醫山問答」이나 「虎叱」에서처럼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창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글은 논문이 아니고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서 배격하지 말자. 문학작품이라도 좋다. 사상 혁신과 표현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 그 둘을 엄격하게 갈라놓아 논문이 형식에 그치고, 작품이 공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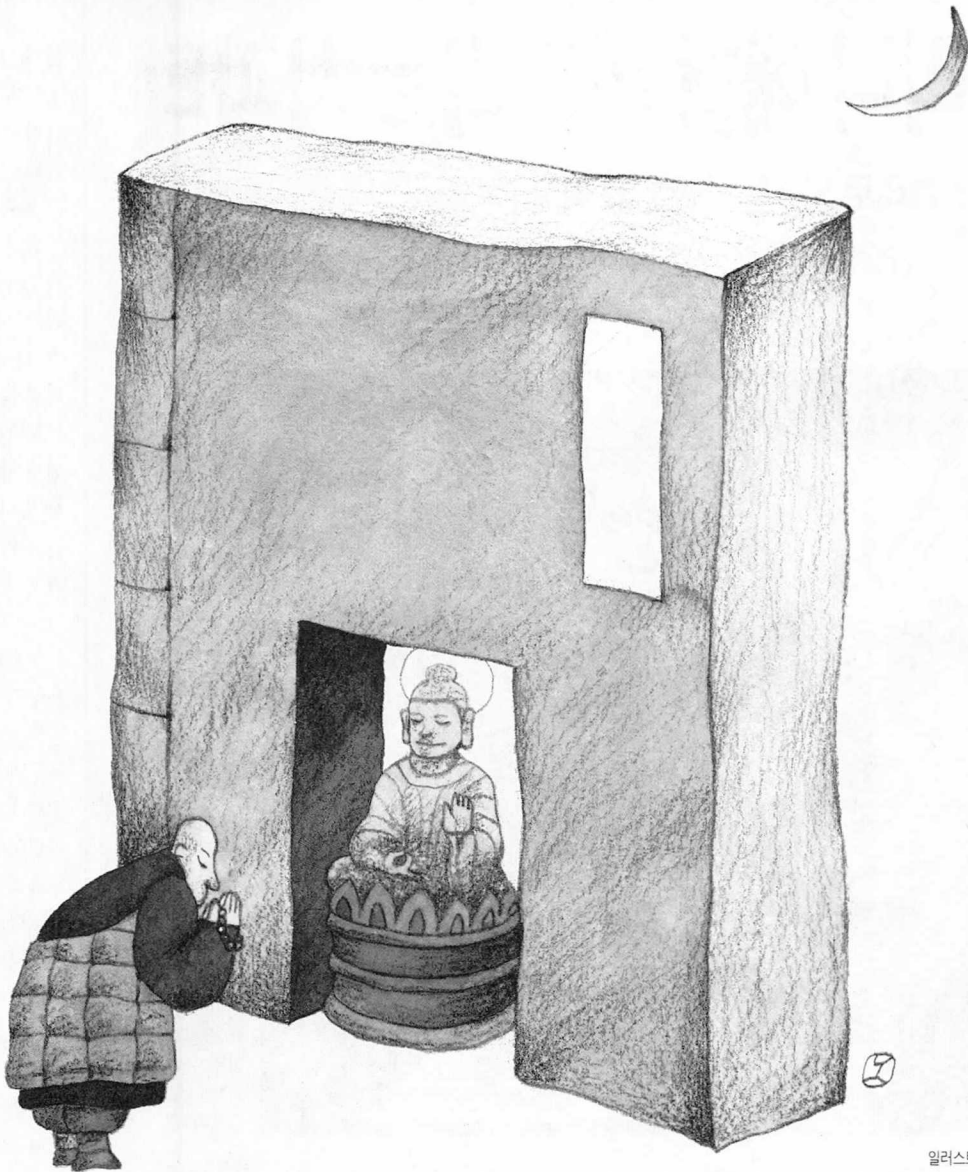
그러나 학술논저 글쓰기로서 더욱 효과 있는 방식은 최한기의 「推測錄」을 잇는 것이다.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논리를 엄밀하게 세우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그 글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개념은 불분명하게 해 두고 비유로 말을 이으면, 본격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 논리를 엄밀하게 해야, 역습을 초래하는 허점을 없앨 수 있다. 주장하는 바를 각기 독립된 단상에다 응축시켜 놓아, 전체를 통독하지 않아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다.

최한기는 오랜 권위를 자랑하는 중세학문이 무너진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다음 단계의 학문을 자기가 앞장서서 이룩하는 데 힘썼다. 자기 학문을 학문을 하는 데 스스로 힘쓰기만하면 그만이었다. 서양학문의 수입 때문에 생기는 차질을 겪지 않았으며, 서양학문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멀리서 섭취하면 되었다. 대학이란 기관이 없었고, 교수로 봉직하지도 않아, 학문하는 것이 직업은 아니니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알아주고, 경청하고, 저술을 구해 읽을 동학들이 없어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술을 하는 데

몰두했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의 와중에서 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부당한 관습과 여러 겹 맞서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지식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치의 근본이 더욱 흐려졌다. 잘못된 지침이 마구 엇갈려 바른 길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면 참견하는 훈수꾼이 너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학문을 위한 제도가 잘못되어 고통이 더 커진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안고 다목적의 논의를 펴야 한다. 당면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치의 근본에 이르는 이중의 작업을 힘써 해야 한다.

그런 난관을 헤치고, 이치의 근본에 관한 창의적인 사고를 참신한 방식으로 전개한 이 시대의 역사가 여럿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학문의 주인 노릇을 하는 자리를 되찾아, 우리에게 부과된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업을 예리한 안목으로 투철하게 해결하고, 인류의 지혜를 덧붙이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 최고 수준에 이른 서양 학문과 당당하게 논쟁하면서 그보다 더 나아간 이론을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과업을 감당해야 한다.



일러스트 레이션 / 노희성